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4. 29.(목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녹색건축과	담당자	• 과장 김유진, 사무관 김용수·서지훈, 주무관 안슬아·김건우 • ☎ (044) 201-3769, 3774	
	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	담당자	• 과장 이동률, 팀장 최형준, 사무관 장지훈 • ☎ (02) 2133-3510, 3575, 3706	
	한국건설 기술연구원	담당자	• 녹색건축연구센터장 유기형, 수석연구원 김예원 • ☎ (031) 910-0347, 0782	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3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4. 2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서울시-건설연 맞손...탄소중립 실현 힘 모은다

-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협업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가 서울특별시(이하 '서울시')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 '건설연')과 함께 2050 탄소중립과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.
 - 해당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·실질적 협력과 함께,
 -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 주관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*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지난 23일 체결하였다.
- * 건축물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·관리(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·규제), 서울시 소유 건물 대상 시범사업('21년~, 51개소)
- 향후 각 기관들은 법·제도적 지원방안 모색(국토교통부), 시범사업 시행(서울시) 및 기술지원(건설연) 등 각각의 주요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총량제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,

-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토대로 한 다각도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.
- 특히,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,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.

《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기관별 주요역할 》

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”라면서,
- “이번 국토교통부, 서울시 그리고 건설연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- 서울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서울시는 도심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68.8%가 건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”면서,

- “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정착 등을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- 한편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은 “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용수 사무관(☎ 044-201-37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